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14~2017.6.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일상 속에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스스로를 달빛 삼다 自月明

원철 지음 | 휴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산사서 돌아와 다시 도심 생활을 시작한 '노마드 스님' 원철 스님 〈사진〉 산문집이다. 스님이 일간지와 여러 종교매체에 응제(應制)받아 쓴 글들을 '자월명' 이란 주제에 맞게 모으고 다듬었다. 이 책에는 도시와 산속을 오가는 수행자로서의 일상과 경전 및 선어록에 대한 탐구,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공간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다. '깨어 있는 마음' '조화로운 삶' '삶의 이면' 을 바라보는 스님의 시선과 담박한 무심(無心)의 언어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자기 성찰, 그리고 반짝이는 깨우침을 함께 전하며 현대인의 꽉 막힌 가슴의 문을 조용히 두드린다.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이란 말이 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이르는 말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원래는 '등(燈)' 이 아니라 '섬(島)' 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라고 하였는데 한역하면서 '섬' 을 '등불' 로 바꾼 것이다. 원철 스님은 평소 이 '등불' 을 '달빛(月)' 으로 바꾸어 '자월명(自月明)' 이라 읊조리곤 했다. 즉 '스스로를 달빛 삼아 자신을 의지하라' 고 한 것이다. 지혜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비 개인 뒤 하늘의 달처럼 맑고 밝은 모습으로, 스스로 경계하고 깨우치며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달빛 삼아 지낸다면 그나마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신간 제목을 '스스로를 달빛 삼다' 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원철 스님은 서문을 통해 "응제(應制)라고 했던가. 임금이 신하에게 글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그처럼 이 책은 대부분 상전(?)들의 부탁으로 쓴 글이다. 청탁받은 그날부터 전전긍긍이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마감이 가까워질 무렵 섬광처럼 '글 고리' 가 스쳐 지나간다. 책을 읽다가 신문을 보다가 혹은 차를 마시다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멍때리다' 가 번쩍하는 그 고리를 낚아채야 한다. 이후 씨줄과 날줄이 얽히며 사이사이에 살이 붙는다. 탈고한 뒤 잠깐이나마 해탈의 경지를 맛보기도 한다. 글로 인하여 윤회(輪廻)를 반복한다고나 할까."라며 글쓰기의 고뇌를 토로한다. 스님은 응제 때마다 지나가는 혼잣말로 '절필' 을 운운하다가도 한편으론 혹여 모자랄까 봐 틈틈이 글을 써두어 곁에 감춰두곤 했다. 이런 자기모순으로 인해 한 권의 소박한 책을 만들 수 있었노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달빛삼아 자신을 의지하라"
저자 수행, 경전과 선사들 이야기 모아
밖으로는 남과 다투지 않는 덕 펼쳐라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수행자 원철 스님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자유로운 생각, 수행에 대한 의미와 경험담을 통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돌아보게끔 안내한다. 강요나 따끔한 충고의 말은 없다. 유쾌하고 때론 거침없는 언어로 세대를 아우르며 마치 한지에 먹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할 뿐이다. 또한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졌던 불교 경전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선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흥미롭게 전하면서 주옥같은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끔 한다. 자기다움, 인연의 소중함, 독서의 즐거움, 공부의 이유, 관계의 조화, 진정한 수행, 중도(中道)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스님은 숨겨진 보석을 찾듯 이 세상을 둘러싼 자연과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배인 집, 가장 이상적인 수행 공간인 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해와 달, 산과 바람, 하늘과 땅 등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건축을 읽어내면서 자신을 돌보는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에 대해서 되짚어본다. 해박한 지식과 문학성을 기반으로 한 스님의 사색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이 책에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랑말랑한 언어도 없고 힘든 인생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거나 짚어주지 않는다. 다만 "좁쌀처럼 흩어놓은 많은 글 가운데 한 편 아니 한 줄이라도 남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구절이 있다면 장강(長江)의 청량한 물 한 모금 역할은 할 터이다. 잡서(雜書)의 한 줄이 남들에게 한 줄기 섬광으로 이어진다면 때로는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노릇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는 스님의 말처럼, 공감을 일으키는 책의 한 구절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선인들의 지혜를 법신(法身, 불법을 완전히 깨달은 부처의 몸) 삼는다면 하늘의 달처럼 밝고 맑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원철 스님은 책 속에서 조언한다. "알고 보면 삶이란 그렇게 단순치 않다. 살다 보면 우애 때문에 금을 버려야 할 경우도 있고, 삼 때문에 금을 버려야 할 상황도 만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애도 살리고, 삼도 버리지 않으면서, 금까지 손에 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복잡한 셈법이다. 도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의식주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더불어 대중 생활을 하면서 의리를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애가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정을 베풀었고, 옷이 필요한 자리에는 가차 없이 삼을 선택했으며,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는 과감하게 금을 풀었던 것이다. 고정된 법칙이란 절대로 없다"라고.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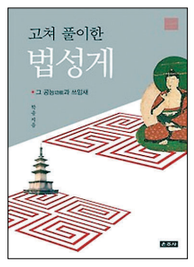
▲저자 원철 스님은?

경남 합천 해인사서 1986년 머리를 깎고, 해인사, 실상사, 은해사 등서 수행하고 경전과 선어록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3년여에 걸쳐 〈선림승보전〉 총 30권을 국내서 처음 번역한 스님은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중과 함께하는 경전법회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월간 해인〉 편집장을 맡으면서 〈불교신문〉 〈달마넷〉 등의 칼럼을 통해 '글 잘 쓰는 이' 로 통한다. 시원시원한 글과 해박한 경전지식으로 인해 빼놓지 않고 읽어볼 만한 칼럼으로 손꼽힌다. 현재 조계사에 머무는 스님은 산과 도시가 둘이 아니라고 믿고, 도시에 살아도 산에서 머물던 마음을 늘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가끔 마음의 고향이며, 젊은 학인시절을 보낸 해인사로 가서 산승의 향기와 색깔을 듬뿍 묻혀 도심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佛法에 쉽게 다가갈 키워드 '법성게'

고쳐 풀이한 법성게

학송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화엄경〉은 법화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쌍벽을 이루는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교리나 사상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말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해 게송으로 표현한 것이, 해동 화엄종의 초조인 의상대사의 법성게 이다. 본서는, 이처럼 한국불교서 거의 경전처럼 중요시된 법성게 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조정해 새롭게 풀이한 획기적인 저서이다. 저자의 진리를 향한 탐구정신과 통찰이 배어 있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정수로 들어가는 방법과 안목을 새롭게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광대무변한 우주적 드라마와 그 실상이 담긴 '대방광불화엄경' 의 무진세계를 단 210자의 게송으로 드러낸 의상대사의 법성게(法性偈)는 예로부터 한국불교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의상 이후 한국불교의 학풍이 주로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법성게는 〈화엄일승법계도〉의 게송 부분을 말하며, '법성원융무이상'으로부터 시작해 '구래부동명위불'로 끝나는 7언 30구 210자의 시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정확하게 〈화엄경〉 내용 전개 순서에 따라 해석돼 왔으며, 이를 당연시해왔다. 그런데 이 책은 법성게에 대한 해석을 전면적으로 재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글자의 위치까지 변동하는 대담한 시도를 감행한다. 실로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사건'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와 논리로 법성게를 이렇게 글자 위치까지 바꾸며 재해석하는 것인가 또한 그것은 과연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오롯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먼저 '글머리' 서 법성게가 위없이 깊고 미묘한 부처님 말씀에 가장 쉬이, 가장 가까이, 가장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키워드의 하나이자, 모든 종교의 근본 교리를 변별할 수 있는 척도 내지 준거이자, 바른 종교와 그릇된 사교(邪敎)의 변별 준거가 된다고 천명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종교와 사상이념체제가 혼란한 인류의 위기상황서 법성게는 새 시대의 영성을 담지한 무궁한 창조력의 원천이자 핵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저자는 법성게가 지닌 공능과 쓰임새가 현대 인류의 진정한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대승경론 등을 참고하여 법성게의 전개 순서와 번역을 현대적 상황과 이치에 맞도록 고쳐 풀이하고 있다.

제 1부에서는 법성게를 고쳐 풀이한 배경을, 법성게가 만들어진 경위와 과정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고친 내용과 그 이유를 제시한다. 이어 '고친 법성게' 란 이름으로 법성게의 내용을 새롭게 재배치해 번역 해석한다. 저자에게 기존 법성게는 첫 구절 첫 대구, 즉 '법계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부터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도저히 다음 대구로 의미가 연결되지 않았다. 고심 끝에 다른 구절과 순서를 바꾸었더니 법계의 실상을 밝혀주는 법성게 본래의 의미가 살아나면서 논리적으로도 온전한 풀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단순한 한자풀이가 아니라, 화엄의 방대한 사상이 210자에 압축된 만큼, 글자와 글자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숨겨진 뜻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함께 읽어내고자 했다.

제 2부에서는 '법성게의 공능과 쓰임새' 를 검토함으로써 제 1부서 새롭게 풀이한 법성게의

모든 종교 근본 교리 변별할 준거
'법성게의 공능과 쓰임새' 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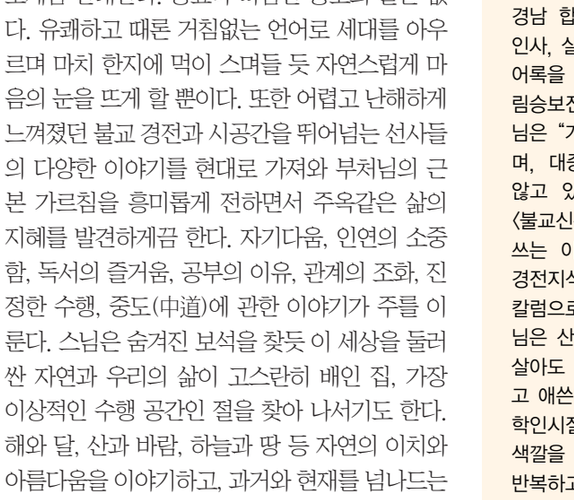
의의와 가치를 현대 인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유의미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인류가 이룩해온 다양한 사상들의 핵심을 소개하고 이를 법성게로 통합하고 승화시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즉 신라시대 명효 스님의 해인삼매론을 필두로, 천부경의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과 만법귀일(萬法歸一) 사상을 비교하고, 동학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법성게의 진성(眞性)과 대비하며, 선가의 여러 핵심사상과 대승불교의 교과서라 할 〈대승기신론〉 사상을 융합한다. 더 나아가 현대 영성가인 크리슈나무르티, 그리고 기독교 성경의 핵심구절들이 기존의 피상적 교리를 뛰어넘어 법성계의 사상과 맞닿을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종교간 소통과 화합의 길이 법성계의 원리에 의해 실현 가능함도 보여준다.

저자는 진리에의 목마름으로 치열한 수행과 학문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법성계의 위대한 진면목과 그것이 현대에 지니는 의미를 발견했으며, 나아가법성게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욱 유의미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현대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시도!

고쳐 풀이한
법성게

◉ 그 공능功能과 쓰임새



법성게의 게송 순서를 바꾸고,
한자를 재배치한 획기적 저서!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한 〈법성게〉의
본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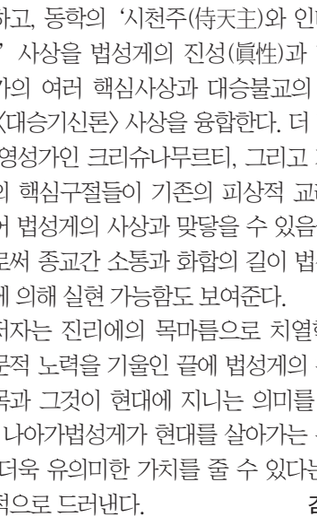
학송 지음/신국판/무선/320쪽/15,000원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불교와 심리학의 융합을 위한 초석!

오래되고 중요한 과제인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무아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서구심리학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psychotherapy without the self
붓다와 프로이트
무아의 심리학



불교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양의 정신의학!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며
정신과 의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공부해온
서양의 정신의학과 심리(치료)학을 동양이라는 렌즈로 비춰본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윤희조·윤현주 옮김
국판/양장/336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